

서울 저스트비 홍대선원과 용산 국방부 원광사가 12월 14일 원광사 큰법당에서 '제1회 홍대선원 · 국방부 원광사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수계법회 후 촬영한 단체사진.

홍대선원 첫 수계법회…"참된 佛子로 살겠습니다"

저스트비 홍대선원 첫 수계현장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서울 국방부 원광사서 법회 봉행해
홍대선원 · 원광사서 100여 명 동참
교구장 법원 스님, '삼귀의계' 강조
청년, 군장병, 외국인 수계자 '눈길'

"저희 수계자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하나이다. 삼귀의를 하고 오계를 받은 저희들은 이 공덕으로 모든 부처님의 일을 성취하고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로 화하게 하며 모든 중생을 교화해 영원한 자유를 구현하겠습니다."

홍대선원·원광사 신도들은 삼귀의계와 오계를 받고 참된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삼보전에 서원했다.

서울 저스트비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과 용산 국방부 원광사(주지 원경 스님)가 12월 14일 원광사 큰법당에서 '제1회 홍대선원·국방부 원광사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을 계사로 진행된 이날 법회는 홍대선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봉행된 수계법회라 의미를 더했다.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은 "수계법회는 사찰에서 할 수 있는 제일 크고 중요한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홍대선원이 개원한 지 3년이 되어 가는데, 부처님과 주변 여러 인연의 많은 도움으로 오늘에서야 여법한 수계법회를 봉행하게 됐다"며 "특히 호국도량 원광사에서 법회를 봉행하게 되어 감격스럽다. 국군장병과 홍대선원 청년들이 함께 수계를 하게 됐으니, 청년전법에 있어 그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삼귀의·반야심경 독송으로 시작한 수계법회는 불법승 삼보를 청하는 '청성', 계를 설하고 내려줄 계사스님을 청하는 '청사', 계사스님의 법문, 팔을 태우며 업장을 참회하는 '연비', 수계자 발원, 계첩 수여, 사홍서원 순으로 이어졌다.

법회에는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 국방부 원광사 주지 원경 스님,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 보리선원 주지 무여 스님, 연등회 사무국장 진용 스님, 선문 스님, 법여 스님, 법증 스님 등 스님들과 홍대선원·원광사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수계법문에서 불법승 삼보에 귀명할 것을 서원하는 '삼귀의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오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계의 근본은 부처님,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께 신명을 다해 귀의하겠다는 '삼귀의계'다"며 "다른 종교나 외도(外道)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부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유지하겠다는 마음을 먼저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향으로 팔을 태우는 연비를 하게 되면 과거의 탁한 업장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음과 몸이 맑고 깨끗해져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이니 오늘 수계법회에 마음을 잘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법문을 마친 법원 스님은 △산 생명을 죽이지 말고 죽을 목숨을 살리는 '불살생(不殺生)'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고 남을 위해 보시하는 '불투도(不偷盜)' △순결을 지키고 청정한 삶을 지키는 '불사음(不邪淫)' △남을 속이지 말고 진실된 말을 하는 '불망어(不妄語)' △술에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을 가지는 '불음주(不飮酒)' 등 오계를 수계대중에게 설하고 이를 지킬 것을 주문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청년, 군인, 외국인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강민경(35, 덕유) 씨는 "가족이 모두 불자인데, 오늘 부모님을 따라 수계를 받게 돼 기쁘고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덕을 널리 퍼뜨리라는 '덕유'라는 법명을 받았다. 주변 인연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불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의미인 법명 '희견'을 받은 허예슬(30) 씨는 오늘 수계식을 통해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 씨는 "법명처럼 행복한 삶을 여러 사람과 나누며 끝에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대자유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대선원 공양주 소임을 맡고 있는 김수영(27, 해미) 씨는 "주지 준한 스님이 직접 지어주신 법명을 받게 되어 행복하다"면서 "앞으로도 홍대선원 공양주로서 스님과 재가자분들에게 좀 더 영양가 있고 맛있는 공양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대건(원광사 군종병, 해월) 상병은 "훈련소 때 이어 오늘 두 번째 수계를 받게 됐는데 그동안 잘못된 일들, 후회됐던 일들을 돌이켜 보고 참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불자가 되고 싶다. 건축디자이너가 꿈인데,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사람이 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수계법회는 외국인에게도 특별했다. 홍대선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루카스(25, 덴마크, 휴암) 씨는 "평소 생각이 많아 괴로웠는데 불교를 만나 많이 좋아졌다. 수계식도 나의 괴로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동참했다"며 "오늘 수계식을 계기로 좀 더 '나'를 깨닫는 데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도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수계첩을 전달하는 준한 스님.



아원 스님이 연비를 하고 있다.



군장병에 연비하는 법진 스님.



덴마크 출신 루카스 씨도 이날 수계를 받았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다.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대한불교조계종
도 갑 사
주 지 수 관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사로 306
061-473-5122

대한불교조계종 연예인전법단
단 장 우 봉
– 임원 · 회원 일동 –

■ 연예인전법단이 하는 일 : 전국사찰노래자랑, 산사음악회, 포교사업, 불자연예인 발굴을 위한 예체능 인재양성 프로젝트 개발, 봉사활동(사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병원), 어르신을 위한 잔치 등 불교대중화와 포교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81, 두산위브파빌리온 1335호
☎ (02)725-0108 FAX (02)734-0770 / 010-3573-0108